

2015년 5월 12일의 일기 - 평범한 직장인의 생각들

08:23 am

오늘은 좀 일찍 나왔다. 이십분 빨리 나왔지만 훨씬 여유롭다. 기나긴 휴가 끝에 이제 앞으로 일 할일만 남았다. 어젠 짝짝한 일 때문에 영 심기가 불편했는데, 제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게 지금 내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앞으로도 잘 할 거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어제 비가 와서 다시 선선해졌다. 기분 좋으면서도 일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날씨다.

지난해 일기를 얼마 전에 봤다. 그러곤 "그 사랑은 머지않아 멈추었지..."라고 생각 했는데, 이 인연 보통 긴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가 약 일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고, 우린 다시 보기로 했다. 그가 기억하는 나와 내가 기억하는 그가 변하지는 않았을지 궁금하다. 한국에 있어서인지 내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난 타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싶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베어버릴 만큼.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냉정한 사람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하지만.

09:12 pm

적당히 먹어야지 해놓고 불필요할 만큼 배가 차게 먹는 건 참 미련하다. 저녁이니 좀 덜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의지가 약해빠져서야. 도대체 -5kg 는 언제 달성 할는지. 진짜 배부른 소리지만, 배부른 게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냥 살 찌는 느낌. 다행인건, 예전처럼 음식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다. 진짜 한창 살이 찌는 때는 매일 먹는 것에 집착하고 맛있는 것은 끊임없이 입으로 집어 넣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운다는 걸 불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문제다.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데. 난 옆구리에 살 찌는 느낌이 너무너무 싫다. 내년 이맘때 즈음 오늘 일기를 또 쓸 때면 제발 그 땐 이런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선 오늘 역시나 심각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서 보니 역시나 카페인 반응이었다. 울적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주는 고마운 카페인. 카페인 반응 때문에 커피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카페인 반응 때문에 커피를 먹는다. 하여튼, 기분이 우울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늘 호프 할머니와 십 오분 동안 통화를 했다. 얼마나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나도 모르게 말을 줄줄이 쏟아 냈다. 빨리 할머니가 보고 싶다. 다음 달에 그가 한국에 오면, 할머니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졸리다. 이대로 자고 싶지만 그건 안 된다. 일단, 배부르고, 화장도 지우지 않았고 책도 좀 읽고 싶고. 참, 오늘부터 새로 읽는 책이 있는데 꽤 재미 있다. 정치 경제 역사를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인데, 딱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주니 잘 산 것 같다. 독서를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어제 보니 2015년 목표 중 반 정도를 시도하거나 달성했더라. 예전의 나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정말 내가 이를 것을 확실하는 목표만 세웠었는데, 지금은 좀더 목표지향적이 된 것 같다.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세운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지.

운동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 복싱을 꽤나 오래 했는데, 상체만 발달하는 것 같고, 무릎도 아파 그만 두었다. 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제 그만 써야지. 어서 6월이 와서 그를 볼 수 있길!